

# 신발폭포 펼쳐진 흐뭇한 풍경

\* \* \*

\* \* \*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평양전백화점에서는 《가을철 전국신발전시회-2022》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신발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 견고성》의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수십개 단위에서 생산된 1000여종에 10만여점의 신발제품이 출품되고 신발공업 부문에서 이룩된 60여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자료가 제출되었다.

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다종다양한 신발들을 전시하고 인민들의 평가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된 전시회는 런일 많은 참관자들로 흥성이었다.

어느 신발생산단위를 막론하고 출품된 모든 신발제품들이 계절적특성에도 맞을뿐 아니라 인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질이 좋은 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이 어느 제품부터 팔라

잡아야 할지 몰라하였다. 그중에서도 원산구두공장 전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신발제품들은 색깔과 모양이 다양하고 세련되었을뿐 아니라 가볍고 든든한것으로 하여 저마다 요구하였다.

평양구두공장의 《날개》상표를 단 신발제품들도 호평을 받았다. 특히 남자구두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였다. 천연가죽 혹은 합성가죽으로 만든 신발제품들을 보며 참관자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한 각종 운동신발과 서천해동공장에서 생산한 사출장화, 만경대구두공장에서

생산한 질 좋은 구두제품들에 대한 반응도 좋았다. 경공업성의 한 일군은 각종 운동신발과 구두, 사출장화를 비롯하여 해마다 출품되는 신발제품들이 늘어나고 그 질 또한 좋아지니 인민들의 평가도 날을 따라 높아간다고 이야기하였다.

《몇년전보다 신발들이 많이 달라졌다. 우리 상료가 볼

은 신발들이 얼마나 질이 좋은지 구려어 다른 나라의 신발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 이것이 전시회에 출품된 국내산 신발제품들에 대한 참관자들의 평가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짝은 자기 지방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들을 내놓는 단위들이 훨씬 늘어난 것이었다.

룡원신발공장, 안주신발공장, 강서신발공장 등에서 출품한 신발제품들은 지방공업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옹건 옹건 할 정도로 다양화, 다색화되고 질도 높았다.

이번 전시회는 나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나라의 신발공업발전면모를 직관적으로 보여준 의미있는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림광훈



## 락랑박물관을 찾아서 (2)

### 락랑문화의 성과와 전통물려들



락랑박물관의 2층 진열실에 들어선 우리는 먼저 락랑문화의 성과와 전통물려들을 돌아보았다. 락랑문화의 성과는 락랑문화의 전통물려들을 돌아보았다. 락랑문화의 성과는 락랑문화의 전통물려들을 돌아보았다.

곳에 쌓았는데 그 한변의 길이는 350~400m로서 총 길이가 대략 1.5km나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곳 성과구획에는 락랑토성에서 발굴된 벽돌과 암기와, 수기와, 막새기와 등의 유물들과 여기서 발굴된 우물자료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우물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삼국사기》에서 나오는 호동왕자이야기와 온달전에서 나오는 《락랑전》도 락랑문화의 전통물려들을 돌아보았다. 락랑문화의 성과는 락랑문화의 전통물려들을 돌아보았다.

## 천연기념물 개성금송

개성시 교려동 송악산기슭에는 100여m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두그루의 개성금송이 자라고있다. 일명 《금송》이라고 부르는 이 나무는 참나무과에 속하는 사철푸른 바늘잎나무이다. 개성금송은 1910년경에 30년정도 자란것을 옮겨심은것이라고 한다.



《동국지리지》는 한백겸(1552-1615)이 우리 나라 고대의 력사와 지리, 중세봉건국가들의 령역과 수도, 산과 강, 요새 등의 위치를 연구고증하여 쓴 력사지리책이다. 이 책은 1640년에 출판되었다.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민족고전 《동국지리지》 부분,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세나라시기 국도, 강역, 형세, 관방에 대한 고증부분 그리고 고려의 국도, 강역, 관방 등에 대한 고증부분으로 되어있다.



가막조개젓 음식감으로 가막조개살 300g 일 때 마우 100g, 소금 6g, 참기름 5g, 사탕가루 10g, 파 5g, 마늘 10g, 생강 고추가루 2g, 참깨 1g을 준비한다. 가막조개살에 채로 썬 마우와 소금, 다진 파와 마늘.

## 지자기폭풍으로부터의 건강보호

지자기폭풍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것은 질병을 예방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은 지자기폭풍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특히 심장혈관계통질환을 앓고있는 사람들이 지자기폭풍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게 된다. 지자기폭풍의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지자기폭풍날 자를 잘 기억해두어야 한다.

건강,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제때에 혈압상축약, 오줌배기약, 진정제 등을 증상에 맞게 써야 한다. 지자기폭풍이 예견되는 날에 물을 많이 그리고 자주 마시며 피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사화 연암동과 박지원 (3)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정조가 즉위한 해는 연암이 마흔살 나던 1777년이었다. 정조가 아직 세손(왕위를 넘겨받을 손자)으로 있을 때 세손의위사였던 홍국영이 정조의 즉위를 계기로 왕권을 등에 지고 온갖 오만부패한 행동을 다하면서 전횡을 일삼았으나 그 누구도 감히 말한마디 못하였다.

정조가 세손으로 있을 당시의 어느날 영조는 세손을 불러 요즈음 무슨 책을 읽는다고 물었다. 《사기》의 《묘종편》을 읽는다는 손자의 대답을 들은 영조의 낯빛이 순간에 흐려졌다.

성적이 엄격하고 날카로와 자기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속에 가두어 굶겨죽인 영조인지라 기분이 틀리면 또 손자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런지 예측할 수 없었다.

영조가 기분나빠한 까닭은 다름아니라 《묘종편》에 《네 어머니는 종이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영조의 어머니 최씨가 바로 왕궁에서 궁녀들의 시중을 들던 종인 무수리였으므로 영조는 늘 이것을 수치로 여기고있기 때문이었다.

영조의 마음속을 재빨리 더듬어본 정조는 《묘종편》의 그 대목을 찢어버리고 읽는다고 대답하였다. 거짓말로 바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였는데 영조는 그 대답이 미덥지 못했던지 사람을 시켜 세손이 보던 책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정조는 낯빛이 까맣게 질려 온몸을 떨었다.

책을 가져오면 입을 속인 죄가 드러났고 그렇게 되면 뒤주속에 갇히는것은 몰라도 세손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을것이 명백하였다. 그런데 이때 세손의위사로 있던 열아홉살 난 홍국

친구가 없으니 어찌한다? 《흠, 걱정도 팔자로운 내 이웃은 범과 이리요, 청서가 또한 벗이 되어줄테데 무슨 걱정이냐.》 연암은 꺾꺾 웃으며 부시를 쳐서 갈밭에 불을 질렀다. 삼시에 삼단같은 불길이었다.



이 말을 타고왔다. 그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무인의 자손이고 그자신도 글이 능하고 활을 잘 쏘아 무과에 급제하였으나 랑반사대부의 마음을 받아 벼슬도 하지 않고 결백하게 지내는 사람이었다.

두사람은 말을 갈축에 세워둔채 팔찌를 돌려보았다. 연암이 재촉을 들어 개울 건너 언덕을 가리키면서 큰 회담을 담은 목소리로 즐거운듯 소리쳤다.

《저기 언덕배기에 꼭- 뽕나무를 심어 울타리를 두르고 이쪽 갈밭에 불을 질러 밭을 일구면 한해에 조천석은 별짓갈래.》 《허허... 그렇게 되면 부자가 될 모양인데 술독마다 찻쌀술이 넘쳐날 때 함께 마실

를 심고 집앞에 천그루 배나무를 접해놓고 개울을 따라 천그루 복숭아, 살구나무를 심고 개울을 막아 못을 만들고 물고기를 기르겠네. 저 아래쪽 바위밑에 100통의 벌을 치고 나무울타리를 두르고 소를 매놓으면 이 팔찌가 어떻게 될상싶은가?》 백영숙이 웃었다.

《부림군, 부림단 말이야.》 ...그런데 몇해후에 백영숙이 이곳으로 다시 왔을 때 천진만만한 리상은 역시 한갓 꿈으로 그쳤고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연암은 초가마당에서 백영숙을 맞이하였다. 《그래 기린팔로 들어가겠 다루?》 연암의 물음이었다.

《더 궁벽한 곳이나 아마 여기보다 나을지도 모르지. 송아지를 안고 들어가는데 그걸 걸러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염장(소금, 된장)이 없어서 돌배를 단고야 장으로 먹어야 하는 곳일세.》 연암은 한동안 대답이 없다가 타이르듯 말했다.

《내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천그루 뽕나무, 천그루 복숭아나무를 꿈꾸었으나 그동안 내 손으로 심은 뽕나무는 겨우 열두그루뿐인데다가 그늘이 또한 어깨노리에 닿을뿐인데, 우리가 한갓 서생의 몸으로 생각이 많으니 힘이 모자라니 한탄스러운 일일세.》

《그럼세. 이 술은 연암선생이 쌀이 아니라 뜻으로 빚은 연암주로 알고 마시겠네.》 《연암주라... 그 참 술이름이 좋군.》 백영숙은 선선히 웃으며 입수염을 갈라주고 잔을 단속에 내었다. 백영숙의 연암은 연암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기린팔로 떠나갔다.